

SOCIETY

2025년 3월 5일 수요일

“걷다가 날벼락 걱정”... 공사현장 불안감 증폭

가림막 옆 안전 무방비 상태... 낙하물 사고 위험↑ 시민들 “버스정류소 이설 등 안전대책 마련 촉구”

“머리 위에서는 쿵방거리고... 사고가 날까 봐 불안해서 못 다니겠어요.” 4일 광주 남구 백운우체국 버스정류소(대성초교 방향)...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지난 2월25일 동구 지산동의 한 노후주택 철거 현장에 가림막이 무너져 작업자가 다치는 사고와 관련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광주 남구 백운우체국 버스정류소(대성초교 방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역 역시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아직 사업이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이전 영업 안내’, ‘주정차 금지구역’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노후 폐·공사이므로 관계자 이외 출입을 엄격히 금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침입 등의 모든 행위 시 부정확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고지됐다.

방향)와 양동시장 교차로(광주역 방향)의 버스정류소 뒤편에는 각각 4층·1층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이곳 역시 사람 출입 또는 불법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한 얇은 가림막과 이를 고정하기 위한 쇠파이프 설치가 전부였다. 현재 이곳은 송정19, 금호36, 문흥39 등 10여개의 시내버스가 지나가고 있다.

만취 상태에서 지인 무차별 폭행 30대 구속

만취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던 지인들을 무차별하게 때려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술을 마시던 지인들을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만취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과 몸 등을 수십 여회 때렸다. A씨의 폭행은 B씨가 기절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어졌다.



“우리동네 경로당 건강더하기 1234” 광주 서구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직원들이 4일 상무우미아트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건강검진 및 건강상담과 노인 우울증 검사, 약손안마를 하고 있다.

의대 학장들, 학생 복귀 호소문... “정부 설득할 것”

전국 40대 의대 수강신청 4219명...5명 중 1명 꼴 “1학기 복귀하지 않으면 2026년엔 감당할 수 없어”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새 학기에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에게 복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외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4일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1년간 의사 양성이 중지돼 의료계에 많은 부작용이 드러날 것이다.

을 맞이하면 도저히 교육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며 “일선 의대를 운영하는 학·원장으로서의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타 해정국에서 교육부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지난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고, 2월24일 교육부 장관과 학·원장 간담회와 공문을 통해 정부에 3가지 의결사항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행·재정적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의대협회는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심의 논의 구조로는 의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론했다. 의대협회는 “의과대학생들은 아직 면허를 가진 의사가 아니므로 의협에 속한 전공의, 기성 의사들과는 다르다”며 “미래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 교육기관인 의과대학을 위협이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불법도박 적발되자 아내에게 허위자백 시켜

50대 전과자 유죄 선고 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뒤 총 122회에 걸쳐 5억7770만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4월 불법도박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자백에 있던 아내 B씨에게 “남편의 계좌로 내가 도박했다”고 허위 자백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로 인해 B씨는 경찰 조사에 ‘남편이 우울증이 심해 남편의 계좌를 이용해 내가 도박을 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과거에 도박 관련 처벌 전력이 있어 재판 시 가중처벌을 받을 것으로 우려해 아내에게 허위 자백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50대 남구청사 돌진

미세먼지 확인하세요! 4일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 A씨는 전날 오전 3시3분께 광주 남구 백운교차로에서 운전 중 돌진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아.

오늘의 날씨

예보 06:57 달맞이 09:50 맑음 18:31 달맞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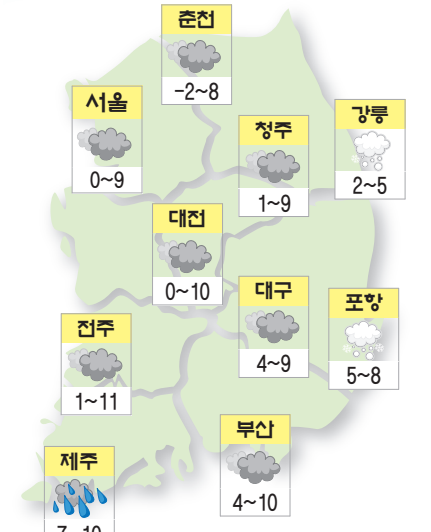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cities including Gwangju, Mokpo, Yeosu, Suncheon, Gwangju, Gyeongju, Jinan, and Jinju.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Mokpo and Yeosu, including time slots for morning and evening.

음주운전 50대 남구청사 돌진

미세먼지 확인하세요! 4일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 A씨는 전날 오전 3시3분께 광주 남구 백운교차로에서 운전 중 돌진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아.

Advertisement for Baroyeon wedding services, featuring a couple in white wedding attire and text: '바로연 바른 만남 바른 결혼'.